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45호 - 주체91(2002)년 5월 29일 (수)　　백두산 편집부

≪테로지원국≫의 딱지를 붙이는 한 미국과의 테로문제협력 있을수 없다

미국무성은 21일 발표한 ≪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데서 또다시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년례보고서≫에서 ≪북조선이 테로주의에 대처하지 않는것이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날조된 ≪문제거리≫를 새롭게 만들어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의 감투를 계속 씌워 놓았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고립압살해 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존중, 사회적정의와 인도주의적리념에 배치되는 테로를 반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엔성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국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 없는 립장이다.

우리는 ≪9. 11사건≫이후에만도 테로반대와 관련한 원칙적립장으로부터 ≪테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데 대한 국제협약≫과 ≪인질반대국제협약≫에 서명 및 가입하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 국제테로행위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2001년 12월 26일 유엔안보리사회에 우리는 반테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지는 법적 및 행정적조치를 취한 정형 등을 통보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문제거리≫란 완전한 날조품으로서 시대착오적인 또 하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이 사실을 날조하여 테로주의에 대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걸고 드는 그 리면에는 흑백을 전도해서라도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부쉬의 ≪악의 축≫발언의 ≪당위성≫을 나름대로 ≪립증≫해 보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 있다.

최근에 미국방장관 람스펠드가 ≪북조선이 대량 파괴무기들을 이미 자기들과 련계를 가지고 있는 테로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등 황당한 날조설을 늘어 놓은것도 다 그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국이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 정치적의지를 밝힌 조미공동성명을 백지화하고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테로≫모자를 구태의연하게 씌워 놓으면서 주제 넘게도 우리와의 ≪반테로협력≫을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테로와 관련한 조치를 취한것은 미국과의 협력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원칙적이며 시종일관한 반테로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테로지원국≫으로 걸고 들면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한 그들과 테로문제와 관련한 협력이란 있을수가 없다.

미국이 대화상대방인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미국의 대화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테로의 왕초인 미국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테로재판관≫이 되여 남에 대해 시비질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세계의 조소와 비난만을 자아낼뿐이다.

2002/05/27 조선중앙통신

F-X공동행동, F-X재가반대 긴급기자회견

F-X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28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에 시민사회단체가 긴급하게 청와대앞에 모였다.

28일 오전 11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은 청와대 삼청동측 진입로 입구에서 ≪F-15K 대통령 재가반대 청와대앞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F-X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거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아들까지 개입된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수사결과 발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민세금 6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설명을 통해 ≪F-15K 재가를 월드컵 분위기를 틈타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해서 되겠느냐?≫며 ≪F-15K를 재가하는 것은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는 짓≫이라 규탄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6월초 F-X사업에 대한 재가에 이어 6월말에 보잉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밝혀왔지만, 재가시점이 1주일 가량 앞당겨진 배경에 대해 참가자들은 ≪대통령 재가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월드컵 분위기로 묻히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F-X공동행동은 ≪국방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 최규선-김홍걸 로비의혹 등 F-15K 도입과 관련된 숱한 외압과 비리의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F-15K도입을 재가한다면 이는 모든 의혹을 묻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의혹투성이의 F-15K 재가를 반대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F-X공동행동은 참여연대, 자통협 등에서 인터넷 및 가두서명을 통해 확보한 ≪F-15K대통령 재가반대 국민서명≫ 81,300명분을 청와대에 전달하려했으나 청와대 국방비서관 이모 대령이 대표단 인원을 문제삼아 수령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청와대가 국민들의 F-X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현 권력은 누수된 수준이 아니라 완벽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F-X공동행동은 F-15K대통령 재가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향후 청와대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시위와 규탄집회, 국회에서 F-X사업 부족 예산을 책정하지 않게 하는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F-15K재가반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2시간 동안 1,200여 개가 올라오는 등 대통령의 재가를 반대하는 사이버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F-X공동행동은 대통령이 F-X사업에 대한 재가를 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 2차 사이버시위를 진행하고, 다음날에는 청와대 근처에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대통령의 F-15K에 대한 재가여부와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동렬 기자
2002/05/28 통일뉴스

2 종합
- **김정일**영도자 혁명활동 소식 세계 각국에서 보도
- ≪우리 여성들은 정말 꽃이다≫
- 6.15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 성사될 듯
- 냉전의 유물은 청산되어야 한다
- 경기도 시민단체, 미군기지 반환 요구
- 미제의 생화학전은 조선민족 멸살을 노린 고의적인 범죄행위(1)

4 노작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1)

6 세기와 더불어
- 9장 1절 조선인민혁명군(2)

8 칭송
- 김정숙여사를 만나뵈온 이남 인사들
- 새벽일과

9 노동신문
- 혁명적 낙관주의 교양을 강화하자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노동생활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천출명장의 담력
- 미국은 살인마
- 한총련 합법화는 시대의 요청
- 반통일분자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13 투쟁보도
-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 시비 가리자
- 미군기지 반대 10만명 외면 말라
-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씨 연행
- 후보들 TV토론회 잇따라 거부
- 김민석 사퇴하고 이문옥 지지해야
- 서울시장 후보 검증 만민공동회 개최

15 운동강좌
-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김정일영도자 혁명활동소식 세계 각국에서 보도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58비행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인도 신문 ≪기이즈 데이즈≫ 22일자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요해하시고 군부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받으셨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군부대직속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였으며 군부대에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23일 라오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22일 기니 라디오방송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58비행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태천3호청년발전소 그리고 구성공작기계공장, 구성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년 5월 27일

≪우리 여성들은 정말 꽃이다≫

평양의 신문들이 조선녀성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쓴 장문의 글 ≪우리 녀성들은 정말 꽃이다≫를 실었다.

글의 필자는 조선에서 녀성은 진정한 아름다운 꽃이며 만발하는 녀성들의 대화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라는데 대하여 쓰고 있다.

글은 인간의 존엄과 지위를 찾고 사람답게 살아 보려던 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비로소 현실로 꽃 펴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녀성이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 혁명의 꽃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도 조선녀성들처럼 남자들과 꼭 같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녀성들은 없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조선에서처럼 녀성들을 위한 법령과 법규가 많고 사회적시책들이 끊임없이 베풀어 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는 녀성중시의 사회이고 우리 시대는 녀성존중, 녀성활약의 시대이라고 썼다.

글은 위대한 태양, 참된 수령만이 녀성들을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키워 주고 가꾸어 줄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온갖 불평등과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녀성들의 수난의 력사를 행복의 력사로 바꾸어 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글은 오늘 조선녀성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녀성문제해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계승발전시키시고 빛내여 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여 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2/05/27 조선중앙통신

6.15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 성사될 듯

6.15 공동선언 2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민간 실무접촉이 오는 6월 1-2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6.15 남북공동행사의 성사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오후 2시, ≪6.15 민족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북측 준비위)≫는 김영대 위원장 명의로 남측 ≪2002 남북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준비위)≫ 앞으로 실무회담에 참여할 남측 대표단의 초청장을 보내왔다.

통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준비위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팩스를 보내왔으며 여기에는 ≪귀측에 보내드리는 것과 같은 서한과 초청장을 판문점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연락소를 통해 보내드리게 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 서한에는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이 북측 준비위의 위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앞으로 보내면서 남측 준비위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준비위는 팩스를 통해 지난 27일 남측이 제안한 대로 금강산에서 6월 1-2일에 실무접촉을 갖자며 남쪽 민화협 측의 조성우 집행위원장, 이승환 사무처장, 종단 측의 변진흥 사무총장, 양덕창 총무차장, 통일연대 측의 한상렬 상임대표, 한충목 집행위원장등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또 북측 준비위는 팩스에서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쌍방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다시 실무회담 초청장을 보낸다고 밝히고 북측의 인내성 있는 노력의 일환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6.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간 논란을 빚었던 팩스경로 문제도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가 범민련을 경유한 초청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편데 대해 적십자사라는 공식 통로를 경유케 함으로써 시비 소지를 방지하면서도 범민련 남측본부 팩스를 계속 이용해 지난 5월 8일 ≪이미 통보한대로 서로의 확스(팩스) 련락을 믿음직한 통로인 일본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하기 바랍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북측 준비위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십자사 경로를 통해 초청장을 보내옴으로써 그간 난관에 부딪쳤던 실무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실무회담의 결과에 따라 6.15 남북공동행사의 성사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회담 무산으로 연동돼 미뤄졌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남북통일노동자대표자회의≫를 위한 실무접촉 등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비위는 27일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3자 합의하에 북측에 팩스를 보내 6월 1-2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제안과 팩스 경로는 북측의 의사에 맡긴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5/28 통일뉴스

냉전의 유물은 청산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7일부는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랭전의 유물은 청산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세가 날이 갈수록 긴장해 지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 수많은 침략군을 배치하고 힘으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확대하려는것과 관련되여 있다고 까밝혔다.

이것은 남조선과 일본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과 일본에 대한 미군의 주둔은 랭전시대의 유물이다. 이 유물이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것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랭전시대의 유물인 미군의 해외주둔정책을 버려야 한다.

지난 시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을 랭전의 론리로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론리가 통할수 없게 되였다.

오늘의 현실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구실도 없다.

미군철수는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미국은 시급히 미군철수용단을 내려야 한다.

2002/05/27 조선중앙통신

경기도 단체, 미군기지 반환요구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미군기지의 신설확장을 반대하는 우리 땅 되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운동본부가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여 의정부의 광장에서 빠스순회항의를 시작하는 행사를 가지였다.

행사에 이어 단체는 의정부의 미군기지측에 퇴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드를 항의서한과 함께 들이댔다.

단체는 27일까지 빠스로 수원비행장과 평택의 공군기지, 매향리사격훈련장 등을 차례로 돌면서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할것이라고 한다.

2002/05/27 조선중앙통신

미제의 생화학전은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고의적인 범죄행위(1)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백서(2)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민족을 멸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알려 진바와 같이 미군은 수십만개의 폭탄과 포탄을 퍼부어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중세기적방법으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에 대못을 박아 죽이였는가 하면 지어는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도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미군이 조선전쟁에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를 사용한것은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전에 적용한것으로서 국제법규에 대한 란폭한 유린은 물론 우리 민족멸살을 노린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다.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저지른 세균전과 화학무기사용에 대한 범죄적사실을 재조사확증하고 그 자료의 일부를 묶어 공개한다.

1. 미군의 세균전만행

조선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미군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해 보려고 세균무기사용을 서슴지 않았다.

미군은 1950년 가을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전부터 준비하여 온 세균무기를 실전에 대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정식으로 작성비준하고 시험적단계와 그를 본격화하는 작전단계로 나누어 세균전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갔다.

미군이 이처럼 조선전쟁을 발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세균무기를 사용한 목적은 전 전선에서 거듭되는 군사적참패를 만회하고 실전을 통해 세균무기를 더욱 연구완성하자는데 있었으며 동시에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세균전경험자들을 더 많이 길러내자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전쟁 전 기간 우리 나라는 미제의 세균전의 마당으로, 그 첫 시험장으로 되였다.

미군은 1950년 12월 초 공화국북반부의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쫓겨 가면서 평양시,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남북도 등 여러 지역들에 천연두를 비롯한 수많은 전염병균들을 음흉한 방법으로 전파시키였다.

미군은 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양시에서, 1950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남도 고원군에서, 1950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교활한 방법으로 전염병균을 퍼뜨리였다.

미군은 ≪가택수색≫을 구실로 인민들을 강제로 집에서 몰아 내고는 천연두균에 오염된 헌 옷가지들과 어린이놀이감들을 집안에 마구 널어 놓았다.

이리하여 미군이 쫓겨 간 때로부터 7~8일간의 잠복기가 지난 천연두가 12월 중순에 이르러 35개 지역들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다.

미제야수들이 퍼뜨린 세균들에 의한 전염병은 1950년 12월 중순부터 1951년 1월까지 미군이 쫓겨 난 평양시, 평안남북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등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발병건수는 급격히 증가되여 1951년 4월에 이르러서는 3, 500건 이상에 달하였다.

특히 미군의 일시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강원도에서 1, 126건, 함경남도에서 817건, 황해남북도에서 602건으로서 가장 심하게 천연두가 만연되였는데 발병자중 10프로가 죽었다.

미군은 또한 이 시기 천연두와 함께 류행성출혈열병원체도 마구 뿌리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재진격에 의하여 패배를 거듭한 미군은 서울이남 37도선까지 쫓겨 가게 되자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 보려고 발악하면서 38도선 중부이남지방과 서울이북사이에 류행성출혈열병원체를 뿌리여 이 지역에 살던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후 전선이 38도선에서 고착된것으로 하여 류행성출혈열병원체의 피해를 오히려 제놈들자신이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이것은 응당한 징벌이였다.

당시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미군이 이 병에 걸려 2, 100여명이나 쓰러졌다고 한다.

이것이 미제가 전파한 류행성출혈열병원체에 의해 미군자신이 벼락을 맞게 되여 당시 세계적물의를 일으킨 유명한 ≪손오열사건≫이였다.

미군은 또한 무질서하게 패주하면서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안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한 매개성티브스환자들을 격리시킬대신 의도적으로 제놈들이 지나가는 길가주변 집들에 마구 들이 밀어 주민들속에 발진티브스와 재귀열을 대대적으로 퍼뜨리였다.

미군은 평화적주민들뿐아니라 거제도와 태평양상의 여러 섬들에 인민군전쟁포로들을 가두어 넣고 세균무기 시험대상으로 삼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륙하는 야수적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1951년 3월 ≪유엔군총사령부≫의 ≪위생복리처장≫ 젬스준장이 인솔하는 제1091호 세균살륙정은 비밀리에 동해안 원산앞바다와 거제도앞바다에 정박하고 있으면서 인민군전쟁포로들을 대상으로 매일 3, 000여회의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1, 400명은 중병에 걸렸고 나머지 포로들중 80프로는 원인모를 여러가지 병에 걸려 애처롭게 신음하다가 죽었다.

미군은 또한 제14호≪야전병원≫으로 가장된 수용소안에서 적리(붉은 배앓이)균을 퍼뜨려 1950년 11월 23일 단 하루동안에만도 91명을 죽이였으며 제4호 수용소안에서는 7개월간이나 세균무기로 무려 2, 000명이상의 포로들을 죽이였다.

한편 미군은 지상화학부대에 의한 세균산포와 함께 은밀한 방법으로 ≪B－26≫, ≪B－29≫형의 비행기로 세균탄을 떨구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군은 세균작전계획에 따라 1951년 11월 군산공군기지에 있던 미제3폭격기련대와 일본 오끼나와에 기지를 두고 있은 미극동공군사령부직속 제19폭격기련대를 동원하여 조선의 서북부(청천강이북－압록강남안지대)와 양덕, 함흥, 원산에 첫 세균탄을 떨군데 뒤이어 1952년에 이르러서는 국부적인 단계로부터 전면적인 단계에로 이행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대대적으로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미군은 세균전을 정규작전으로 벌릴데 대한 상전의 명령에 따라 1952년 1월부터 3월까지 질병의 만연성정도, 세균무기와 용기의 종류별상태, 운반수단으로서의 비행기의 종류별 적합성, 각이한 지대에 대한 세균무기의 사용효과, 투하하는 방법 등 세균전을 련마하려는 목적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서북부와 중요 수송로, 후방의 중요철도간선, 분기점들과 그 주변의 주민지대에 매월 평균 10여차이상 세균탄을 계획적으로 떨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1952년 1월 28일부터 페스트, 콜레라 등 전염병을 전파하는 많은 량의 각종 독충들을 비행기로 실어다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에 련속 산포하였다.

미군은 1952년 1월 28일 강원도 평강군에, 2월 11일 철원군에, 17일 평강군에, 18일 평안남도 안주시에, 23일 평원군에, 25일 강원도 문천시에, 26일 평안남도 대동군에, 27일 평양시 강동군과 평안남도 순천시에, 29일 황해북도 수안군에 파리와 모기, 거미를 비롯한 전염병균을 가진 각종 독충들을 대량적으로 뿌리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52년 1월과 2월에 이어 3월 1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과 평안남도 양덕군에, 2일과 4일에는 함경남도 고원군과 평양시 중구역에 파리, 벼룩 기타 곤충들을 뿌린것을 비롯하여 거의 매일과 같이 독충들을 산포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은 전면적인 세균전을 벌리기 시작한 1952년 1월 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독충들과 균이 묻은 여러가지 물건들을 떨구었을뿐아니라 중국동북지방의 광범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세균탄을 떨구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조선에 파견되였던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거나 체험자들에게서 청취한 증언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되여 있다.

1952년 1월 30일 조사단은 강원도 이천동남지역에서 파리, 빈대, 거미가 눈우와 돌사이를 기여 다니는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불 태워 버렸다. 그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파리들은 콜레라균에 감염되여 있었다.

1952년 2월 18일 조사단은 평안남도 안주군 대니면 발남리(당시)에서 파리, 거미, 딱정벌레들을 발견하였는데 추위속에서도 그것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

파리는 조선파리와는 달리 긴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몸집은 크고 머리는 조선파리보다 비교적 큰 편이였다.

거미는 종래의것은 큰것과 작은것 두 종류로서 색갈은 검은것이였으나 발견된 거미는 그 크기가 중간쯤 되였으며 몸빛은 조금 희였다.

딱정벌레역시 종래의것은 몸집이 둥글고 약간 누른빛인데 발견된것은 몸집이 납작하였으며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 지방에서는 계절적으로 이때에 파리와 거미를 본 일이 전혀 없었다.

곤충들이 발견되기 전날 야밤에 미군비행기들이 이 지역 상공에 낮추 떠 수차례 선회하였으나 폭격 또는 소이탄을 떨구거나 기총사격을 한적이 없었다.

조사결과 이 곤충들은 페스트균에 감염되여 있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1주일이 지나 이 부락에서는 50명의 페스트환자가 발생하였는데 3월 11일까지 약 600명의 부락인구중에서 36명이나 사망하였다.

1952년 2월 22일 황해도 봉산군 초와면 양동리(당시)와 사인면(당시)에서는 얼음과 눈우에서 보통파리보다 머리가 작고 날개가 길며 몸에 털이 많은 파리들이 발견되였다.

평안남도 개천군(당시)에서는 2월 25일 이후 파리와 기타 곤충들이 9차례나 발견되였는데 그것 역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종류의 곤충들이였다.

이 군에서는 4월전에 파리가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2월 26일 개천군 북면(당시)에서는 누런 종이에 싼 곤충이 눈 녹은 습지우에 뭉쳐 있었고 2월 28일 평안남도 강동군 원탄면 송오리(당시)부근에서 개미같은 곤충들이 발견되였는데 직경이 약 30센치가량의 몇개의 무리로 되여 있었으며 각 무리의 간격은 약 3메터~5메터였다.

다음날 그것들은 이미 800메터의 거리에까지 흩어 져 있었다.

곤충들이 발견되기 전날에 5대의 미군비행기들이 반시간동안 그 장소우로 선회하였으나 역시 폭탄이나 소이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기총사격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곤충들은 장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감염되여 있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3월 3일과 4일에 평안남도 순천군의 자산면 고읍리(당시)와 순천면 마상리(당시)에서는 이상한 모양의 파리들이 약 1평방야드(1평방야드는 대략 0. 836평방메터)가량의 면적우에 뭉쳐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파리들은 령하 10도씨이하의 눈우에 있었으나 살아 있었다.

파리의 머리는 조선파리보다 작고 날개는 서로 붙어 있었으며 몸집은 보통파리보다 길었다.

이 지역에서는 보통 이 계절에 집밖에서 파리들이 살고 있는것을 볼수가 없었다.

이날 안주부근에서는 모기들이 무데기로 발견되였는데 보통모기들은 머리로부터 몸까지 약간의 털이 가볍게 덮여 있는데 발견된 모기들은 털이 훨씬 더 많았다.

1952년 3월 5일 평양시 중구 남문리(당시) 길우에서는 파리들이 크고 작은 무리로 발견되였는데 그 다음날 이 거리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3월 11일 벽동군에 있는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몇키로메터 떨어 져 있는 곳에서도 파리와 기타 곤충들이 눈우에 떨어 져서로 뭉쳐 있는것이 발견되였다.

조사단이 콜레라환자를 처음 진단한것은 1952년 2월 20일이였다.

환자는 강원도 철원군 북면(당시)에 사는 김학문(40살)이라는 사람이였는데 그는 2월 23일에 사망하였다.

같은 마을에서 3월 5일 두사람이 역시 병 들어 누웠는데 그 다음날 두사람 다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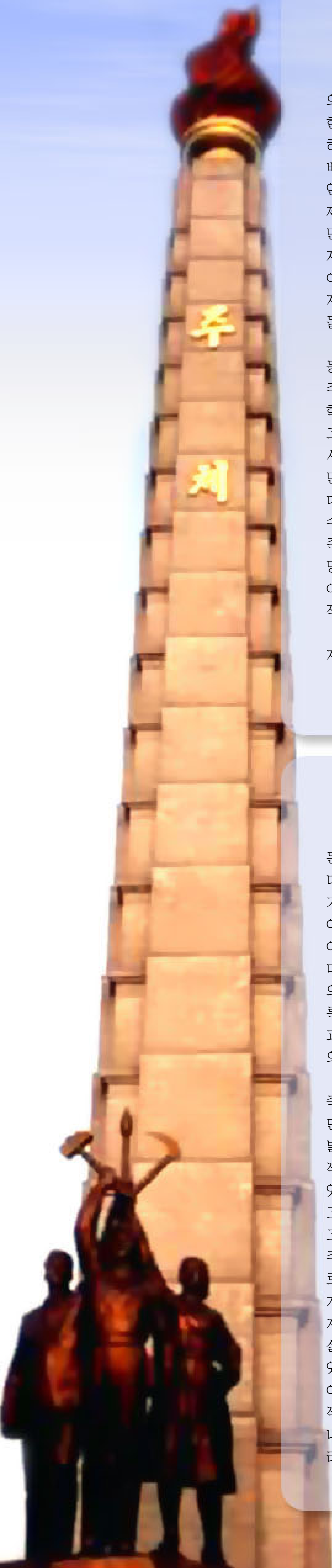
3월 8일에 3명이 더 앓아 누웠고 그중 한 사람은 그날로 죽고 나머지는 3월 9일에 죽었다.

평양시에서는 3월 6일에 2명이 병들어 눕고 또 한 사람은 3월 8일에 병들어 누웠다. 그중 2명이 3월 8일에 죽었다.

주체91(2002)년 5월 25일
평 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

김정일장군님 - 주체86(1997)년 6월 19일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역량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지만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투쟁을 가로막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으나 어떠한 힘도 자주에로 나아가는 우리시대의 기본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 혁명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혁명투쟁의 전 역사적 기간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튼튼히 지킬 것이며 주체의 한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1.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을 그 자주적 본성과 역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원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고 완성되는 자주적인 혁명위업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없다. 사회적 인간은 계급과 계층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이며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가진다. 매개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문화와 전통이 있는 것만큼 민족성을 무시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옳게 실현할 수 없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사회주의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참다운 혁명위업으로 될 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가려는 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며 지향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인민은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넋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인민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가 자기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인민대중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속에 전진해 나가도록 하자면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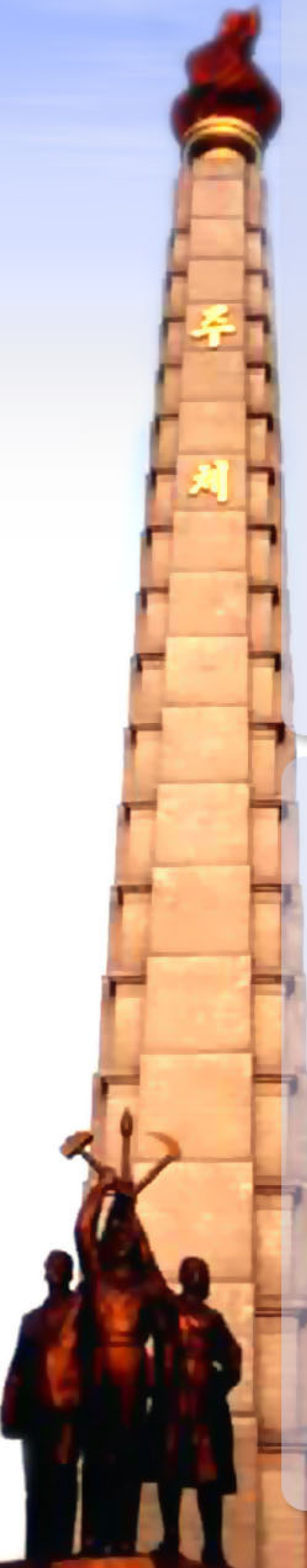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구이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며 그것은 매개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이 보장되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만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 이것이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참다운 국제주의적 관계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억제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될 때에는 나라들 사이 민족들 사이에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단결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은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국제적 위업이며 매개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계사회주의위업이 전진하며 완성되어 나간다. 매개나라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 하여야 세계사회주의위업도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선행한 노동계급의 이론에서는 그것이 옳게 해명되지 못 하였다.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인류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선행이론은 민족의 형성을 자본주의의 발생발전과 결부시켰으며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민족 자체가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매개나라와 민족들의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 마련되지 못 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문제로 나섰던 당대의 역사적 조건에서 선행이론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었다. 노동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선행이론의 사상도 당시 사회주의운동에서 절박한 의의를 가지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 안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를 부식시키는 기회주의를 극복하여야 할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틀어쥐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벌여나가는 우리시대에 와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적지 않은 나라 당들은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지 못 하였다. 이 나라 당들은 세계사회주의운동 안에서 민족부대들이 자기인민의 요구와 민족적 특성,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하는 것을 마치도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기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편견과 그릇된 정책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민족적 기반과 지지를 잃는 결과를 빚어내게 됐다.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완성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어느 민족에게서나 민족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인 것만큼 주체성과 민족성을 무시하면 불피코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참다운 민족자주위업으로 되지 못 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계급적으로도 그 지반이 점차 약화되게 되였으며 결국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좌절과 붕괴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재난을 겪고 있으며 민족분쟁의 유혈적 참화까지 빚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민족재난의 책임을 사회주의에 넘겨씌우면서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주의가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자본주의 보다 못한 것처럼 훼방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날조이다. 민족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민족성원들이 적대계급들로 분열되어 있고 사회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으며 사회적 재부가 민족 공동의 발전에 제대로 쓰일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생산수단과 재부를 틀어쥐고 있는 착취계급이 관심 하는 것은 오직 돈벌이이다. 반동적 착취계급은 치부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이익도 서슴없이 팔아먹으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약탈은 제국주의의 변할 수 없는 본성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민족적 평등도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도 이룩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부강번영은 오직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민족공동의 발전에 이용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계급적 착취와 함께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청산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옳게 살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원칙적 요구이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숭고한 애민의 사상인 동시에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힌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되며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민족들의 발전과정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 민족들이 문명하고 힘있는 민족으로 발전하며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면서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민족들 사이에 협조와 연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위업의 자주적 본성과 그 수행의 사회역사적 조건을 해명한 데 기초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사회주의와 민족이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이 끝없이 융성번영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한 사상이론을 제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을 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위업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신 것은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구현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견지하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우리 혁명 우리 민족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켜 풀어 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당과 인민이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길을 가로막는 대국주의를 견결히 배격분쇄한 것은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였다. 지난날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을 민족주의니 고립주의니 하면서 비방하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제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서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벌이던 때에도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통합경제를 강요하는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만일 항일혁명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의 혁명가는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신념과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였더라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포기하고 떼부에 들어갔더라면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억누르는 대국주의를 배격하는 것과 함께 그에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꾸준하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 대국주의가 발붙일 수 있는 틈을 없앴으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외세의존사상을 뿌리 빼고 자기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통일되어 진행되였다. 우리는 주체성과 국제주의를 대치시키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본성에 맞게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유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을 수행하면서도 언제나 다른 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지지성원하며 계급적 전우들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투쟁하는 국제주의적 원칙을 지켰다.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와 반목이 격화되어 세계사회주의운동에 분열의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우리 당은 원칙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이룩하도록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반미항전을 벌일 때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을 하면서도 아낌없는 원조와 지원을 주었다.

(내일 계속)

3권 제9장

제1차 북만원정

1. 조선인민혁명군
2. 부자와 가난뱅이
3. 노야령을 넘어서
4. 영안땅에 모인
하모니카 소리
5. 천교령의 눈보라
6. 인민의 품

1. 조선인민혁명군(2)

조선인민혁명군은 경우에 따라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활동하였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동북이라는 명칭은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국호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적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였다.

우리가 조직한 인민혁명군이 ≪만주인민혁명군≫이나 ≪중국인민혁명군≫이 아니라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명칭으로도 활동한 것은 반만항일을 투쟁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던 중국 동지들에게 있어서도 적합한 것이였다. 결국 동북인민혁명군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서의 사명과 함께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반만항일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무력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간조와 동변도 일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전역에서 가장 강대한 무장력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취한 원칙적인 입장과 용의주도한 정치적 아량은 그후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 특히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우리 혁명의 주체노선에 명실상부한 형식이나 명칭만을 고집하였더라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국인민의 광범한 지지성원속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훗날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한 다음에도 조중항일연합군의 성격에 맞게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할 때에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였고 조선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조선에 나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정황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가며 활동함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중양국 인민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며 싸울 수 있었다.

우리가 운동의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더욱 중시한 것은 지금의 시점으로 평가해보아도 참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원칙적인 견해와 폭넓은 태도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도 투쟁의 민족적 성격과 독자성을 원만히 고수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중국 동지들이나 국제당으로부터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출판물들은 간도에 조직된 인민혁명군을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썼다.

1935년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발행된 ≪동방잡지≫는 동북에서의 빨치산 투쟁에 대하여 쓰면서 간도에 조선인민혁명군이 3,000명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국출판사에서 발행한 ≪동북항일열사전≫에 그대로 전재하였다.

후에 동북항일연군이 편성된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2군이라고 부른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성격에 있어서 조중 양국 인민의 국제적인 반일통일 전선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제2군안의 조선인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화민족의 해방운동을 국제주의적 기치 아래 지원하였다.

간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직되어 그 전과를 확대해가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공포를 느끼고 그 존재의 위협성에 대하여 제일 큰소리로 떠든 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이였다.

그들은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항일무장력을 그 명칭은 어떻든 ≪**김일성**군≫으로 통칭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후 반일공동투쟁의 성과를 위하여 간도지방에서 공헌영, 채세영, 사충항, 이삼협 등이 이끌던 항일의용군은 제 2군의 군대호를 가지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과 연합하였는데 이것을 ≪동북화한인민혁명군≫(동북조중인민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공정을 거쳐 사실상 동만 땅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벌써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보중은 자기의 글에서 ≪항일연군 제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 … 항일유격전쟁 중 중조인민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선혈로 얽혀져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투쟁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을 격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사람들도 만주, 특히 간도에 조직된 빨치산을 ≪조선인 순혈빨치산≫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우리 동무들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쏘련의 이름 있는 중국 및 조선문제 전문가였던 웨. 랍뽀뽀르뜨는 1937년에 쏘련의 국제정치잡지 『태평양』에 쓴 ≪북부조선지역에서의 빨치산운동≫이라는 글에서 ≪…조선빨치산들의 대부분은 통합되어 있고 자기의 중앙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혁명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썼으며 ≪조선빨치산과 만주빨치산간의 현존하는 연계와 접촉의 확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우 큰 불안을 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일본은 국경지역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교체나 실무적인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항일유격대가 걸어온 전투적 노정을 총화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유격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오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군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이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을 분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최종 소탕전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동기≪토벌≫에서 참패한 관동군 수뇌부와 도쿄의 군부는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소동을 벌이던 끝에 1934년 봄부터 종전의 초토화전술을 재검토하고 보다 악랄한 새로운 ≪토벌≫계획으로 이른바 위공작전이라는 것을 들고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군사적 포위공격과 정치적 폭압, 경제적 봉쇄를 배합하여 유격구를 종국적으로 소멸하려는 악랄한 작전이였다.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이 신발명을 장개석이 중국 소비에트구를 공격할 때 쓰던 봉쇄정책의 재판이라고 보았다.

장개석의 봉쇄정책이 ≪정치공포, 경제공황의 비인간적 세계를 연출하여≫ 공산군으로 하여금 입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위공작전은 유격구의 인민과 군대를 모조리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쏘아 죽이고 태워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이 작전을 위하여 집단부락을 만들어 군대와 인민을 분리시키고 중세기적인 십가연좌법과 오가작통법과 같은 보갑제도로 모든 항쟁세력을 적발숙청하려고 하였다.

봉쇄정책과 위공작전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장개석의 전술은 ≪온찰온타 조보정책≫이었다. 이 전술은 상대를 포위한 다음 급하게 추격하지도 않고 깊이도 들어가지 않으며 어떤 지점을 점령하면 천 천히 그것을 공고화하며 다시 내놓지 않을 방도까지 연구하면서 다음 지점에로의 공격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전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사람들이 고안해낸 ≪보보점령≫전술이였다.

우리 동무들이 이 전술을 두고 ≪일본사람들 신세두 참 가련하게 됐구만, 장개석의 신세까지 지게 되었으니≫라고 한 것은 실없는 우스개소리가 아니였다.

적들은 위공작전을 준비하면서 1934년 봄부터 유격구 주변에 관동군정예부대들과 조선강점군 부대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위만군부대들을 증강하였다.

우리는 적들이 위공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유격구방어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대규모적인 작전으로 적 후방의 군사정치적 지점들을 연속 타격하여 놈들의 기도를 앞질러 파탄시키는 한편 보다 유리한 지대에 유격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피로써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앙양된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고조에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춘기공세를 벌여 왕청지방에서 적의 주요 배치지들과 소백초구, 대두천, 석두하자와 전각루를 비롯한 집단부락 건설장들을 습격하였다. 훈춘과 연길, 화룡의 동무들도 집단부락 건설장들에 대한 습격으로 적의 위공작전 기도를 첫걸음부터 짓부숴버렸다.

우리는 이 공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주동에 튼튼히 서서 위공작전을 완전히 파멸에로 몰아넣기 위하여 곧 하기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공세의 중심적 지향은 유격구역을 안도현 서북부와 왕청현 동북부로 확대하는 것이였다. 적이 위공할 때 우리가 고정된 몇개 유격구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적의 기대에 맞장구를 치는 것으로 되며 그들이 기도에 협력하는 것으로 된다.

유격구를 안도현 서북부로 확대하는 것은 인민혁명군 제1사와 독립연대가 담당하고 왕청현 동북부로 확대하는 과업은 인민혁명군 제2사에 떨어졌다. 대전자와 푸르허를 연결하는 이 유격활동구역이 안도현의 생명선이라면 라자구, 로모저하, 태평구, 삼도하자 일대는 훈춘현과 왕청현의 생명선이였다. 이 고장들은 모두 목단령과 로야령을 끼고 있는 유격활동의 이상적인 적지로서 독립운동 시기부터 홍범도, 최명록, 이동휘, 황병길과 같은 이름난 무관들의 관심 속에 있었다.

우리는 1사 사장 주진과 독립연대장 윤창범으로 하여금 대

윤창범

라자구전투를 지휘하시던 집

전자-푸르허 일대에 대한 공격을 선행하게 하여 적의 주의가 그리로 쏠리게 한 다음 라자구 방면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관동군의 시선이 안도현 대전자 일대에 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인민혁명군 2사 4,5연대의 일부와 반일부대들과 함께 라자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삼도하자와 사도하자를 차지하였다. 삼도하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1,500여 명에 달하는 반일부대 장병들과의 연환모임이 열렸다. 이것은 라자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일종의 사상전이였다. 라자구전투에는 반일부대측에서 공헌영부대, 사충항부대, 채세영부대, 이삼협부대 등이 참가하였다.

라자구는 왕청현 백초구, 동녕현성과 연결된 적들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라자구시내에는 문장인 영장이 이끄는 위만군 수백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라자구는 원래 500호 정도의 주민세대를 가진 그리 크지 않은 고장이였는데 9,18사변 후 적의 군사적 거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32년 봄부터는 간도임시파견대의 중요한 기지로 되였다. 일제는 이 파견대가 철수하자 증강된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을 라자구에 상주시키고 그것을 위공작전의 한개 밑천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우리가 선제공격을 가하여 라자구 일대를 장악하는 것은 위공작전의 한 귀퉁이를 깨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유격구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주되는 고리였다.

우리는 삼도하자의 이태경노인네 집에서 반일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라자구공격과 관련된 작전회의를 하였다.

이태경은 의병과 독립군 경력을 다같이 가지고 있는 우국지심이 매우 강한 노인이였다. 노인은 한 때 최자익과 함께 북로군정서에서 총무로 일한 적도 있었다.

서일이 보통 병졸에 지나지 않는 이태경을 총무로 임명한 것은 그의 뛰어난 사격술과 서예솜씨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일이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를 설교하자 이태경은 그에 입교하여 독실한 신자가 되였으며 김좌진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주장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도 동조하여 그 대가로 권총까지 선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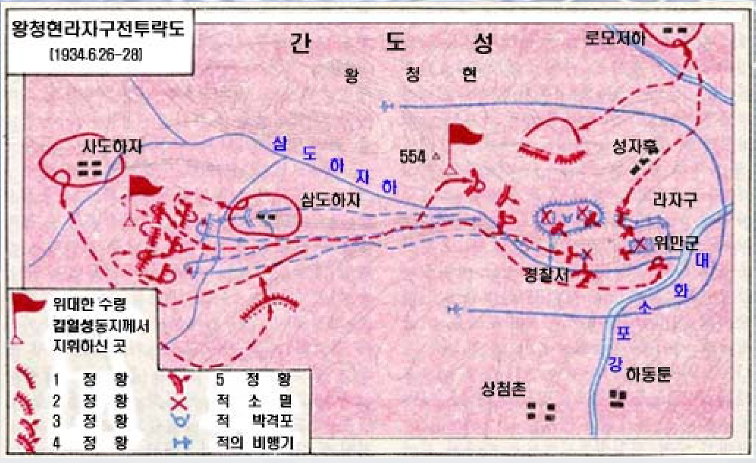
간도 대《토벌》을 앞두고 김좌진이 북만으로 철수할 때 노인은 상전들을 따라 밀산에 갔다. 그러나 김좌진이 연길현 도목구의 청림 속으로 깊숙이 사라진 후에는 그도 동료들과 함께 시도하자 지방에 와서 총을 파묻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이태경 노인에 대한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반일부대 지휘관들에게 작전의도를 설명하려고 라자구시가 약도를 펼쳐놓았을 때 바람결에 펄럭거리지 말라고 노인이 그 약동의 창문 쪽 귀퉁이를 돌러 지질러놓던 일이다. 이태경네 집안 사람들은 그 돌을 복돌이라고 하였다. 달걀처럼 매끈매끈하게 생긴 기묘한 돌이였다. 노인의 말이 자기가 십리평에서 북로군정서 총무로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죽기 전에 그 돌을 넘겨주었는데 오래 간수하고 있으면 복이 차례진다는 유언까지 남겼다는 것이다.

그 복돌은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태경노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그 돌을 가보로 넘겨주었다. **김일성**장군이 작전지도 위에 놓고 만진 돌인데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1959년에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에 갔을 때 노인의 아들은 그 돌을 우리 답사단에 넘겨주었다.

이태경 노인은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라자구 반일회장 최정화의 소개로 이 노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33년 여름이였다. 그때 나는 백마를 타고 삼도하자에 가서 군중정치공작을 하였다. 그 과정에 삼도하자 반일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마을의 좌상인 이태경노인을 망라시켰다. 이 노인이 반일회에 가입해가지고서는 마을 사람들을 잘 교양하였다. 마을의 좌상이며 첫째가는 유지인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동리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받아들였다.



마을에 의병이나 독립군 출신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런 마을은 혁명화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이태경처럼 무기를 파묻고 투쟁을 중도반단한 독립군들도 거의다 애국심 하나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핵심이 되어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산에서 고생하는 혁명군을 잘 돕자고 호소하면 누구나 다 《그래얍지요》하였다. 그들이 나서서 마을에 혁명군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면 《떡을 쳐얍지요.》하든가 《소를 잡아야지요.》하였다. 독립군 출신들 중에 변절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절대다수는 말년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을에 가나 독립군 출신 유지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석현에서는 오채희, 서대파에서는 최자익, 마춘에서는 이치백, 동일촌에서는 김동순, 삼도하자에서는 이태경 하는 식으로 독립군 출신 영감들부터 선참으로 찾아가 인사도 하고 목침을 베고 나란히 누워서 시국이야기도 나누었다.

해방 후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 출신들을 사상이 다르다고 하면서 배척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때였다. 간혹 편협한 사람들이 간부사업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따돌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고수해온 통일전선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였다.

나는 그런 경향에 부닥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곤 하였다.

《사조가 다르다고 독립군 출신들을 배척하는 것은 고약한 짓이다. 독립군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못한 것은 제한성이지 죄가 아니다. 당신들은 혹시 춘향이나 이도령이까지도 공산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애국선배들을 몰라보면 안 된다. 시대마다 다른 사조가 있는 법인데 무엇때문에 배척하고 경계하고 따돌리는가. 그래 남들이 뜨뜻한 온돌방에서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더운밥을 먹으며 살아갈 때 독립군이 생명을 걸고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 게 죄란 말인가?

나는 집에서 제 밥벌이나 하며 편안하게 산 사람들보다는 총을 메고 싸운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더 훌륭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독립군을 배척하면 우리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라.》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경대에 혁명자 유가족학원이 섰을 때 거기에 독립군 출신 인사들이 있으면 그들을 능력에 따라 간부로도 배치하였다. 초대 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강진건선생과 공화국 내각의 초대 도시경영상 이용선생도 독립군 출신들이였다.

우리가 작전회의를 끝내고 전투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적들이 선손을 쓰려고 먼저 성시 밖으로 쏟아져나왔다는 정찰보고가 지휘처에 날아왔다. 우리는 유리한 지대에 그들을 끌어다가 주력을 소멸한 다음 계속적인 추격전으로 성시공격을 개시하였다. 연합부대는 폭우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녕현성전투와 마찬가지로 라자구전투에서도 제일 큰 암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하여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반일부대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서산포대에서 쏜 박격포탄에 주보중을 비롯한 몇몇 반일부대 지휘관들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주보중은 공헌영 부대의 참모장으로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지휘관들의 부상으로 사기가 저락된 일부 반일부대들이 라자구를 등지고 무질서하게 퇴각을 시작하였다.

이 퇴각을 저지시키지 못하면 싸움은 패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 서산포대를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라자구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리로 되였다. 서산포대에는 박격포 뿐만 아니라 중기관총과 경기관총들도 여러 정 배치되어 있었다.

이 포대의 화력에 의하여 이미 한흥권중대장이 창자가 쏟아져나오는 치명상을 당하였고 조왈남도 전투능력을 잃어버렸다. 한흥권의 부상이 얼마나 처참하였던지 그는 자기를 쏘아달라고 애원까지 하였다.

나는 좌절상태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포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동무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산포대를 점령하자! 혁명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자!》

그리고는 싸창으로 적을 쏘아눕히면서 앞으로 돌진하였다. 포대 위에서 기관총탄이 우박처럼 날아와 귓부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떤 탄알은 모자에 구멍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숨을 돌을 사이도 없이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였다. 대원들이 땅을 걷어차고 일어나 내 뒤를 따랐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서산포대는 30분만에 점령되고 포대 꼭대기에는 붉은기가 휘날렸다.

그 깃발을 본 반일부대 병사들도 신심에 넘쳐 총돌격에로 이전하였다. 그들을 좌절에서 돌격에로 불러일으키는 데서는 주보중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의 희생정신이 큰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주보중은 중상을 당한 몸이였으나 두 팔을 벌이고 동요하는 반일병사들을 막아나서며 서산포대에 휘날리는 저 붉은기를 못보는가고 외쳤다. 그 모습을 본 반일병사들은 퇴각을 중지하고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육박하였다.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라자구를 지키던 문영장과 일본지도관은 관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마지막 전문에서 **김일성** 등 2,000의 합류비에게 6일 5주야 동안의 포위공격을 당하여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탄약은 이미 다 떨어지고 우리들의 운명은 경가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들은 국가를 위하여, 만주건국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음을 떳떳하게 여긴다, 사령관, 이를 용서하라.》

라자구전투때 붉은기를 꽂았던 서산포대의 망루

라자구와 대전자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항일전쟁에서 이룩한 첫 성과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라자구진공전투는 적들의 위공작전 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을 걷잡을 수 없는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이 전투 이후 유격구 주변의 대소 《토벌대》는 오금을 펴지 못하고 겁이 나서 벌벌 떨었다.

실로 라자구 전투는 왕청유격구 동북부 일대의 적을 제압함으로써 유격구 확대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으며 반일부대와의 연합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라자구 전투 후에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였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동만의 혁명군중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도와 라자구 일대에 많이 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군사 정치활동을 맹렬하게 벌여 이 지역을 보이지 않는 혁명근거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혁명군은 1934년의 하기공세에서 피도 적지 않게 흘렸다. 대전자의 전승담 속에는 화룡유격대 조직자의 한 사람이며 연대정치위원인 노동계급 출신의 신망높은 지휘관 차용덕이 뿌린 피도 찍혀 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된 후 처음으로 전사한 정치위원이였다.

(끝)

김정숙여사를 만나뵈온 이남의 인사들

이남사람들중에는 백두산의 여장군 **김정숙**여사를 만나뵈온 사람들이 많다.

몽양의 탄복

몽양 여운형선생은 8.15광복직후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저 이북에 갔다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과 여성영웅 **김정숙**여사 그리고 어리신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웠다.

몽양 여운형선생은 자기 호의 의미와도 같이 꿈속에서도 햇빛을 그리워하던 사람이였다. 나라 찾을 청운의 뜻을 품고 독립운동에 나서 3.1만세도 불렀고 동방민족의 자결권을 위한 국제회의장 연단에서 약소민족의 설움도 토로했다. 상해, 인도, 필리핀, 모스크바로 동분서주하며 간디와 네루, 손문 그리고 레닌도 만나보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햇빛은 볼 수 없었다.

이 과정에 그는 이 세상의 이름있다는 정치인들, 영웅호걸들을 속눈썹 아래로 굽어보는 도고한 마음이 생겼다.

햇빛을 찾아 헤매이던 그에게 마침내 광명의 햇빛이 비쳐들었으니 그것은 바로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만주광야에서 일본 백만대군과 맞서 항일대전을 벌이신다는 소식이였다. 특히 **김일성**장군님께서 국내의 보천보를 치신 소식은 그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조국이 광복되자 주체35(1946)년 초에 지체없이 북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받은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컸고 더욱이 항일의 여장군으로 명성이 높으신 **김정숙**여사의 극진한 환대까지 받았으니 참으로 여운형선생의 감격은 헤아릴 수 없이 컸다.

여사께서는 몽양을 따뜻이 맞이하여 주시고 불편이 있을세라 보살펴 주셨다. 인자함과 소박함이 그대로 안겨드는 여사의 고결한 성품,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는 자애에 넘치신 밝은 웃음, 친혈육을 맞아주시는 것 같으신 한없이 친근하고 부드러우신 음성, 몽양 여운형선생은 **김정숙**여사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여운형선생은 서울에 돌아와서도 늘 ≪… 나는 내평생에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 하는 여걸들과 여성명사들을 많이 보아왔소. 그러나 **김정숙**여사 같으신 분은 어디서도 본적이 없소. 유명한 사격수로 이름떨친 여장군이신데다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뛰어난 정치활동가이시오. 그처럼 현숙하고 상냥하며 소박하고 소탈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소. **김정숙**여사 같으신 분은 동서고금에 두분도 없을게요…≫라고 탄복했다 한다.

벽초의 환갑상

백두산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의 숭고한 인정미는 벽초 홍명희선생에게도 뜨겁게 미쳤다.

선생이 환갑상을 받던 일도 그 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주체37(1948)년 7월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승용차를 보내시어 평양의 ≪고려호텔≫에 들어있던 홍명희선생을 댁으로 오게 하셨다.

그가 장군님과 **김정숙**여사를 따라 방안에 이르니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푸짐히 차려진 환갑상이 놓여 있었고 여러명의 항일투사들과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명희선생은 환갑상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신통히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였다.

(…누가 이 환갑상을 차렸을까. 어떻게 내 식성까지 이처럼 세심히 알고 있을까.…)

환갑연이 한창 진행될 때 비로소 환갑상에 깃든 사연을 안 선생은 **김정숙**여사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여사께서는 어느날 장군님께서 홍명희선생의 환갑상을 차려주어야 하겠는데 서울음식법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걱정하시는 것을 보시고 서울음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물어가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날부터 여사께서는 서울음식법과 예법을 배우셨고 몸소 그것을 하나하나 익히시면서 벽초의 환갑상을 준비하셨다. 한편 홍명희선생의 식성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다.

그래서 당시 국가적인 연회도 그 준비에 하루이상 품을 들이신 일이 없으신 여사이셨지만 벽초의 환갑상준비에는 무려 3~4일이 잘 걸렸다 한다.

홍명희선생은 무척 감개무량하여 ≪나는 서울에서 소문난 음식점들을 다 가보았지만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차려주신 음식들은 서울장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참말로 작식솜씨가 대단하십니다≫라며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 한다.

소낙비 내리던 5.1절

백두산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의 위인상에 탄복한 이남의 정객 가운데는 백범 김구선생도 있다.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끝난 직후인 1948년 5월 1일 유서깊은 성도 평양에서는 메이데이를 경축하는 근로자들의 군중대회가 있었다.

이날 백범은 주석단 한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그 명성이 높으신 **김정숙**여사와 백두의 초연 속에서 탄생하시어 준엄한 폭풍우속을 헤치시며 애국의 뜻을 키워오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와 계셨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한창 군중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다. 군중들은 소낙비를 함뿍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도 그대로 비를 맞고 계셨다. 한 수원이 장군님께 우산을 받쳐드리자 장군님께서는 군중들이 다 비를 맞고 있는데 내라고 우산을 받겠는가고 하시면서 한사코 거절하셨다. 이것을 본 백범은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했으나 이남의 정객들이 다 그대로 우산을 받고 있는데 자기만 유독 물리칠 수 없어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김정숙**여사와 어리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사와 자제분께서 그냥 비를 맞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군중대회장의 민중들과 똑같이 비를 맞고 계시는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여사 그리고 **김정일**장군님, 세분을 번갈아 바라보는 김구선생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군중대회가 끝난 다음 숙소에 돌아온 김구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이런 말을 했다 한다.

≪만민을 위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철석같은 이념은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광장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실례의 하나로서 민중과 더불어 내내 억수의 비를 맞으며 서 계시는 장군님의 기상이 그러하며 그리고 장군님의 부인과 지어는 예닐곱살에 불과한 자제까지도 민중과 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기특하기 이를데 없는 심정으로 스산한 그 소낙비를 줄곧 맞으며 서있는 광경이야말로 그러했다. 요컨대 어지럽고 부끄러운 나의 한생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광경이였다.≫

정녕 **김정숙**여사는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이시다.

≪새벽일과≫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모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효심에는 끝이 없었다.

그 숭고한 마음은 **김정숙**동지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어김없이 집행해 오신≪새벽일과≫에도 뜨겁게 어려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광복조국에서의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있은 일이다.

한 녀성일군이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를 만나뵈오려고 저택으로 찾아 갔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드리실 아침식사를 준비하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였다.

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 서던 녀성일군은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뜻밖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엌일을 하시는 짬시간에 당보를 열심히 읽고 계시는것이 아닌가.

(하필이면 제일 바쁘신 이 시간에…)

녀성일군은 사연을 알수 없었다.

한꺼번에 두세가지 일을 동시에 해제끼시는 그이의 빠른 일솜씨를 늘 보아 왔지만 새벽시간에 이렇게 신문까지 읽으시는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순간의 휴식도 모르시고 긴장하게 일하시는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는 녀성일군의 마음은 안타까왔다.

그는 **김정숙**동지께 신문은 낮에 보셔도 되지 않는가고 말씀 드렸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요즘 장군님께서는 밤 늦도록 일하시고도 아침일찍 일어 나시여 당보부터 찾으셔요. 당보를 보신 다음에 다른 일을 하시는데 신문을 보시는 시간이 될수록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장군님께서 빨리 알아 보시게 표시하여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여 드리고 싶으시였고 또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으신것이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 같은 마음이였다.

그 누구도 미처 따르지 못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효심앞에서 녀성일군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 올랐다.

(그래서였구나.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매일 새벽에 이렇게…)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낙관주의교양을 강화하자

노동신문 사설 - 주체91, 5월 27일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기치 따라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비약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비상한 정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의 한길로 이끄시기에 주체조선의 전반적국력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끝없이 양양한 미래가 열려 지고 있다.

선군시대의 장엄한 현실은 락관주의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전도는 양양하며 락관적입니다.≫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하는 군대와 인민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미래에 대한 락관이 없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을 힘 있게 전진시켜 나갈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백승을 떨칠수 없다.

우리는 시련이 겹쌓일수록 ≪미래를 사랑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락관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 시기 락관주의교양에서 기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열어 나가시는 선군의 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며 그 길에 혁명의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심어 주는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선군사상으로 일관되여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 없는 대결전에서의 승리도 무적의 군력으로 이룩해 나가시고 강성대국건설에서의 일대 비약의 폭풍도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일으켜 나가신다.

백두의 혈통을 이어 우리 혁명을 영원히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중대한 위업도 총대중시사상에 기초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과 선군정치는 멸적의 보검이고 강성대국건설의 열쇠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마련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선군시대의 락관주의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굳게 믿고 영원히 선군의 한길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선군혁명동지이다. 우리는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도, 우리 조국과 민족의 미래도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깊이 새겨 주는데 모를 박고 락관주의교양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 락관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군대와 인민을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 하지 않고 웃으며 과감히 뚫고 나가는 의지의 강자들로 키우는것이다.

혁명은 시련에 시련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우리는 앞으로 지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을 또다시 겪을수도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역경에 처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간고하다고 하여 한번 선택한 혁명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 설수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주체혁명의 길이다.

시대의 앞장에서 력사를 전진시키는 선구자는 언제나 험난한 시련의 길을 헤쳐 나가기 마련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가야 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난관을 두려워 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는 목숨보다 귀중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고난의 행군≫의 나날 추호도 비관과 절망을 몰랐으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락관의 구호를 들고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강행돌파하였다. 우리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구호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의 시기가 열백번 다시 닥쳐 온다고 하여도 혁명적랑만에 넘쳐 주체혁명의 한길로만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만만한 투지와 필승의 신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한번 다진 맹세를 지켜 만난을 웃으며 맞받아 뚫고 나가는 백절불굴의 기개와 락천성,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더욱 깊이 새겨 주어야 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의 중요한 내용이다.

현 시기 락관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살며 투쟁하게 하는것이다.

혁명적락관주의자는 비관과 절망, 자만도취를 추호도 모르는 참된 혁명가이다. 뒤떨어 졌다고 하여 비관하거나 자그마한 성과에 도취하는 일이 없이 포부와 리상을 크게 가지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것이 혁명적락관주의자의 고결한 정신세계이며 투쟁기풍이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의 리상이며 투쟁목표이다. 이 웅대한 목표는 자그마한 안일과 해이,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릴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강성대국의 령마루와 조국통일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 나가는 참된 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시대의 락관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을 선군시대의 참다운 락관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백절불굴의 혁명적락관주의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불굴의 의지와 무비의 락천성을 지니신 희세의 락관주의자이시다. 일찌기 백두산에서 항일의 총성을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성장하시고 준엄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에서 령장의 담력과 맞받아 나가는 기질을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전 로정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영웅서사시를 엮어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민족최대의 국상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포위압살공세, 련이어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강인담대한 의지와 불굴의 락관주의 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일떠세워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영웅적으로 돌파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울리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락관주의정신을 깊이 심어 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 특히 선군혁명실록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미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락관주의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에 대한 철의 신념의 발현이고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적인생관의 결정체이며 풍만한 정서와 랑만의 분출이다. 우리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우리가 걸어 온 선군의 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며 그 길로 나가는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백두의 선군령장의 드팀 없는 신념과 담대한 배짱을 안겨 주어 그들 모두가 그 어떤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결전의 길로 용약 떨쳐 나서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강성대국의 래일을 위하여 힘과 지혜, 열정을 깡그리 바쳐 나가게 하여야 한다. 노래와 함께 걷는 자는 영생한다는 고귀한 명언을 내놓으시고 혁명의 노래와 함께 풍만한 정서와 랑만의 세계를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모를 따라 배워 모두가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언제나 락천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게 하여야 한다.

락관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조선혁명은 혁명적락관주의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 온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우리가 걸어 온 혁명의 길은 걸음걸음 엄혹한 시련이 겹쌓인 전대미문의 험난한 길이였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굳게 믿고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여 왔다.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항일의 녀투사의 신념의 목소리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혁명적기상은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지녔던 락관주의정신이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힘 있게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런 숭고한 락관주의정신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굿굿이 이어 져 왔기에 우리는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는 영웅적위훈도 세울수 있었으며 재더미만 남았던 페허우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는 식민지노예의 설음도 겪어 보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며 전쟁의 시련도 겪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락관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천신만고를 달게 여기며 굴함없이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락관주의정신으로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락관주의정신을 계승하여 광복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들이 발휘한 숭고한 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전통교양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고 교양수단과 조건들도 충분히 갖추어 져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에게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숭고한 락관주의정신을 깊이 심어 주기 위한 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집체적으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며 혁명전적지답사,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교양사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혁명전통교양을 벌려 나가야 한다.

락관주의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 락관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사람의 사상정신적풍모는 혁명실천속에서 공고화되며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이 곧 사상수양과 사상단련과정으로 되게 함으로써 군대와 인민이 장엄한 실천속에서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 백절불굴의 혁명절개와 락천성을 키우고 높이 발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에 기초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군대는 미래에 대한 신심에 넘쳐 훈련도 생활도 전투적으로, 락천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민군군인들처럼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웃으며 과감히 맞받아 뚫고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랑만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군가의 정신에 발을 맞추어 언제나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중대예술소조활동과 군인가족예술활동을 본받아 군중예술활동과 대중체육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여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웃음소리가 넘치고 생기발랄한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약동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위력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 전반적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고 우리 시대의 위력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은 영원히 금성철벽이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광활한 미래는 백절불굴의 투지와 락관주의정신으로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것이다.

모두다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22회
임종수 선생 - 주체91, 5월 27일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노동생활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하나인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이라는데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심화발전 시키신 가장 과학적이고 우월한 경제관리 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관리에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답게 참가해서 경제건설에서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가운데서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노동생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생활에서 창조적 노동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제생활에서 노동생활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문화적 재부가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생활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적 노동으로 물질문화적 재부를 창조해야 경제의 발전도 사람들의 물질적 수요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생활에서 노동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끊임없이 진행되고 노동생활과정에 경제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에서 노동생활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또한, 노동과정에 사람이 더욱 힘있는 존재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노동실천 과정을 통해 사상을 단련하고 불굴의 의지를 키우며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로 협조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정신도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노동과정에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움으로써 더욱 힘있는 존재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입니다.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에서 일할 뿐아니라 노동의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노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과 우월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는 인간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는 진보적 사회이고 우월한 사회로 되지만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반동적인 사회로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의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노동의 권리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확고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며 또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노동 생활조건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며 노동의 열매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확고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노력자원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일할 나이에 이른 고등중학교 졸업생들과 제대된 군인들 대학 졸업생들은 그들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알맞춤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건강관계로 사회보장을 받다가 건강이 회복되거나 노동능력이 회복됐을 경우에도 국가가 알맞춤한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실업이라는 말을 모르고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놓고 창조적 노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자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실업을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력을 헐값으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영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빛내여 가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노동의 권리를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있으며 노동의 열매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합리화의 구실 밑에 노동자들은 대대적으로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해메고 있고 실업문제는 하나의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인민대중에게 초보적인 생존이 걸린 노동의 권리마저 빼앗는 반인민적인 사회이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뿐아니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자면 안정된 일자리와 함께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생활조건이 보장돼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일이 힘들고 **하며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주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배려에 의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위생문화적인 노동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일터에서 마음놓고 흥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고 노동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 직후 새조국건설의 한그람의 철이 그처럼 귀중할 때에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온천로를 폭파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포제련소의 현대적인 밀폐식 용광로를 웅장하게 건설하시고 ***의 온천로식 소금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 버리도록 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노동조건을 안겨주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근로자들의 노동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건설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유해노동이 없어져 모든 노동자들의 안정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에서 노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 보다 훌륭한 노동생활조건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규정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목적이 근로자들의 피땀을 더 많이 짜내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노동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기계의 부속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혁명의 목적자체가 사회의 생산력과 함께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근로자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문화를 확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공장내부를 궁전과 같이 공장주변을 공원과 같이 알뜰히 꾸리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장, 기업소, 농장 그 어디를 가보아도 모든 근로자들이 깨끗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보람찬 노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노동의 열매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근로자들의 창조적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 온갖 재부가 전적으로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민대중이 노동의 열매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빛내여 가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노동의 권리를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있으며 노동의 열매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평등하고 건전한 물질생활에 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출명장의 담력

해외동포여러분, 이북을 포위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따라 한반도에는 긴장과 대결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민족의 존엄과 전도를 판가름할 이 중차대한 시간에서 7천만 겨레의 눈길은 이북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든든한 배심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소유하시고 미국의 광란적인 흉책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는 천하제일의 명장이십니다.

그분의 이런 무비의 담력을 보여주는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해 겨울이였습니다. 인민군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 된매를 얻어맞은 미국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대형함선들과 방대한 무력을 끌고와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려 발광했습니다. 이 침략무력은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인민군의 한 장성이 장군님께 ≪아메리카에서 보복의 검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장성의 보고를 들으신 그분께서는 방안이 떠나갈듯 호탕하게 웃으시며

≪보복의 검은파도가 밀려온다? 거참 그럴듯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겁날 것은 없습니다. 겁을 먹으면 땅개도 덤벼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파도에 대해서는 붉은 파도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잘 준비했다가 한바탕 본때있게 답새겨봅시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최고사령부 작전실로 몸소 나오시어 여유작작한 태도로 ****을 한눈에 내려다보시며 밀려오는 검은 파도를 붉은 파도로 밀어버릴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놀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여주는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이북의 핵문제를 구실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해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은 것으로 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시기 동해의 명승지에 새로 일떠선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사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이북민이 비분에 떨고 있는 것을 기화로 침략세력들이 더욱 미쳐 날뛰고 있을 때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데도 오늘밤 12시까지는 건설을 해야 한다시며 평양시의 향유다리와 금능2동굴을 건설하도록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여기에 군인들을 동원시키신 사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백두산의 천만산악과 같은 장군님의 불굴의 기상과 담력이 있어 이북의 인민군은 연전연승의 쾌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겨레는 지금도 행성의 초점을 모았던 3년전 3월의 사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걸프전을 통해 기고만장해진 미국이 이북에 대한 핵사찰을 구실로 재침략의 예봉을 이북에 돌리고 있던 그때 이북은 그야말로 익측도 없는 속에서도 도발자들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전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북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침략세력들의 숨통을 향하여 일제히 멸적의 화신들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실로 이것은 침략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예상밖의 단호한 조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폭탄선언앞에 그처럼 등등했던 침략세력의 기세는 벼락맞은 나무처럼 뭉청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번에 세계의 면전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경수로제공의무를 책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항복서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이북이 오늘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는 불패의 기상은 조선이 없으면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전체 동포들은 인류위인사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셔 통일강성대국의 새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확신하고 자주통일대행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역의 동포들을 그리며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26일

미군은 살인마

최근 6.25전쟁당시 미군이 감행한 대전형무소 집단학살과 관련한 영국기자들의 증언록이 연이어 발굴되어 이를 계기로 학살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 민주당 전갑길의원은 영국 유력주간지 ≪옵저버≫ 기자 필립 딘이 쓴 ≪나는 한국에서 포로되었다≫와 일간지 ≪데일리 워커≫ 기자 앨런 위닝턴이 쓴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 등 2건의 6.25전쟁당시 미국에 의해 감행된 대전형무소집단학살관련 증언록을 공개했습니다.

필립 딘 기자는 자기의 증언록에서 1950년 7월 23일 충북 영동에서 인민군포로가 됐고 포로생활중 만난 프랑스인(당시 72살) 카다르신부로부터 대전형무소집단학살의 진상을 들었다고 기록했어요.

학살현장을 목격한 카다르신부는 미군이 철수하기 직전 한국군경이 1700여명의 재소자들을 트럭에 겹겹이 싣고와 미군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앨런 위닝턴기자도 자기의 증언록에 대전형무소집단학살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증언록에서 학살직후 대전인근을 방문했을 때 6개의 구뎅이속에 7000여명의 피학살자가 묻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쓰고 형무소재소자집단학살이 7월 4일부터 6일, 7월 17일 두차례 감행됐으며 특히 2차 학살때는 여성을 포함한 재소자이외에 민간인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 학살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위닝턴기자는 이와 함께 1950년 6월 29일에서 7월 3일사이 서울 서대문형무소 지소가 있는 인천에서 1800여명, 수원에서 1200여명이 집단학살되었다고 주장해 대전 이북지역 형무소에서의 재소자학살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영국 종군기자들의 증언록에 의해 미군이 6.25전쟁당시 대전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 인천지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애국자들과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야수적으로 학살한 재소자들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군정통치와 매국배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이승만통치를 반대해 나섰던 사람들이죠.

미국이 이승만집단을 사주해 이런 애국자들을 옥에 가두고 온갖 박해와 고통을 강요한 것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그것으로도 부족해 한국군경들을 내몰아 한두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수천여명의 애국자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같은 미군의 살육만행은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살인악마 식인종 무리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야수적 행위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군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인마로서의 야수적 본성과 살인기질을 발휘해 수백만에 달하는 우리 민중을 학살했어요.

극도의 민족배타주의와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미군은 1945년 9월부터 1949년 7월까지의 약 4년동안에 9만3000여명의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했고 1949년 7월부터 1950년 1월까지의 7개월동안에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의 지휘밑에 무려 10만2000여명의 애국적 민중들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미제는 1950년 여름부터 1951년 여름까지 전쟁 1년동안에만도 무고한 양민들과 피난민 등을 100만여명이나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미제의 살육만행은 이남지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였죠. 미군은 6.25전쟁시기 이북의 일부지역을 일시 강점했을 때에도 무고한 주민들을 수많이 야수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미군은 전후에는 이 땅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수많이 학살했어요. 심심풀이로 쏘아죽이고 길가는 사람들을 차로 깔아죽이며 개를 풀어 물어뜯어 죽이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목을 졸라 죽이는 등 미군야수들이 감행한 살육만행들을 일일히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인류역사에는 점령군의 만행자료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미군들처럼 평화적 주민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야수적으로 학살한 사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 민중과 민족에게 저지른 양민학살만행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아닌보살을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참화까지 덮씌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강점책동이 계속되고 있는한 우리 민중의 피가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인마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분기할 것입니다.

그리운 북녘형제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6일

한총련의 합법화는 시대의 요청

파쇼세력들의 탄압책동을 분쇄하고 10기 출범의 닻을 올린 한총련은 지금 여러 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가일층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

각계층 민중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성전에 열과 성을 다바쳐가고 있는 아들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한총련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 있다.

최근 한총련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범국민적 차원에서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한총련에 거는 각계층 민중의 기대가 얼마나 크며 한총련의 합법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청임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지난 1월 서울의 향린교회에서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대책기구마련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민주인사들은 이후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를 묶고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

4월 9일에는 대구와 경상북도지역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사회단체대표들, 종교인, 문화인 등 각계 인사들이 한총련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302인선언≫을 발표하였다.

한총련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언론들에서도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한겨레≫ 4월 13일부는 ≪한총련을 합법화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안당국의 학생운동말살책동을 규탄배격하고 한총련에 관한 이적단체규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각계층 민중의 이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청년학생들도 각종 문서를 발표하고 시위투쟁을 전개하며 한총련의 합법화요구관철을 위해 총매진하고 있다.

이 땅의 양식있는 사람들 모두가 일치하게 주장하다시피 한총련에 관한 이적단체규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지향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한총련은 민주적 선출로 대학생들이 구성한 자율적인 학생운동단체이다. 더욱이 한총련이 투쟁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은 시대의 지향이고 각계층 민중들의 절절한 바램이다.

한총련의 지나온 투쟁역정은 시대와 역사가 부여한 이같은 사명에 충실하여온 가장 정의롭고 애국적인 헌신으로 수놓아져 있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우리 청년학생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한 반미반전투쟁과 수구보수세력척결운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들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애국적인 학생운동단체에 이적의 감투를 씌우고 청년학생들의 투쟁진출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 것은 냉전과 대결시대의 산물이다. 이같은 구시대적 탄압책동은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해빙기가 도래한 오늘의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민족분열책동의 일환으로써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학생들을 검거구속하고 처형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말과 실천이 괴리된 언어유희의 극치일뿐이다. 이런 거짓 속셈을 품고 어떻게 신성한 통일무대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래서이다. 지금 사회각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비단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각계층 민중의 지지와 성원의 표출만이 아니다. 그것은 통일을 바라는 온갖 민족통일행위들을 싹쓸이하고 6.15공동선언이 이행되는 통일시대에 걸맞는 환경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이다.

탄압이 만능의 무기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탄압으로써는 결단코 한총련을 말살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온 학생운동사가 깨우쳐주는 교훈이다.

공안당국의 한총련탄압책동은 파쇼와 민족분열에서 살길을 찾는 반통일분자들의 너절한 정체만을 드러내보이는 계기로 될 뿐이다.

반통일세력은 한총련말살을 꾀하다가 도리어 제 파멸을 좌초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이행열기로 온 경향이 끓어번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애국의 기개와 열정을 남김없이 과시할 수 있는 투쟁의 활무대이다.

각계층 민중이 청년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 승리는 결정적이다.

한총련의 합법화는 그 누가 거저 가져다주는 선사품이 아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각계층 민중과 더욱 굳게 결집하여 한총련의 합법화를 요구해 투쟁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그 실현의 길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들과 반통일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일 때 구시대의 유물인 한총련에 관한 이적의 올가미가 끊어져나가고 파쇼폭압책동도 더이상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10기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똘똘 뭉쳐 파쇼폭압책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학생회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단결의 위력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전선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7일

반통일분자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지금 각계층의 민중들은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필두로 한 우익보수분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이행을 바랄 수 없다고 하면서 반민족반통일세력을 척결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아다시피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불맞은 송아지처럼 이리저리 뛰며 반북대결을 고취하는 악담질을 계속 해대고 있어 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그들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치 않게도 그의 책임을 이북에 전가하면서 그 무슨 벼랑끝 전술이니 뭐니하며 이북을 헐뜯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들이고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없지만 고약하기 그지없는 언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남측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4.5공동보도문발표로 닫혔던 남북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을 눈앞에 둔 때에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상전을 찾아가 굽신거리며 이북을 심히 자극하고 대화분위기를 깨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는 미국의 강경대북정책이 북을 남북대화의 마당으로 나오게 하였다는 등 부시의 대북강경책에 부채질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최성홍이 백악관을 찾아가 한 언동이야말로 4.5공동보도문이행에 빗장을 가로지르는 엄중한 반통일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남측이 진실로 대화의지가 있고 최성홍의 망동이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면 당국은 마땅히 외교당국자가 밖에 나가 대화대방을 심히 자극하고 대화분위기를 깨친데 대해 이북에 응당 사죄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최성홍의 사대굴종적이고 매국반역적인 망발은 그가 통일의지도 없고 외교당국자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으며 그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에 더 큰 부정적 작용을 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화개최를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입은 삐뚤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반북대결에 광기를 부리는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분자들에게 판별력이 있다면 4.5공동보도문이 발표되어 대화재개의 길이 열린 것이 이북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온 민족이 4.5보도문이 성실히 이행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민족화해의 넓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도 이 땅에서는 이북의 금강산댐붕괴위험설을 광고하는 모략소동이 벌어지고 북을 반대하는 전쟁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응당 문제시해야 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체 외면하고 대화상대방을 걸고 온갖 모략과 험담을 일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을 북에 전가시키며 북을 자극하는 망발을 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낸 표현이며 4.5공동보도문이행을 가로막고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대결을 고취하는 자들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가기 마련이다.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사대매국노들이 이성마저 잃고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 보려고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온 민족의 불같은 통일열망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로 굽이쳐 가는 민족사의 흐름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분자들의 반민족, 반통일, 반북모략책동을 걸음걸음 분쇄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의 그날을 기필코 안아올 것이다.

그리운 북녘형제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6일

≪이회창 아들 병적기록부 펼쳐 놓고 시시비비 가리자≫

≪오마이뉴스≫, ≪키179㎝, 체중45㎏의 ≪건장한 20대 청년≫ 공개모집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는 이 후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조의 부인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은폐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

주간 ≪오마이뉴스2002≫ 제3호(5월 21~30일자)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가 공동으로 보도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병무청 고위간부 K씨와 한나라당 K, J 의원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3자의 진술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7년 당시 병무청 고위간부 K씨의 측근이었던 이 목격자는 지난 1월 K씨에 대한 검찰 조사 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97년 당시) 힐튼, 하이얏트 호텔 등지에서 한나라당 K, J 의원과 병무청 고위간부 K씨, Y 씨 등이 여러차례 만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의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건 보도 이후, 한나라당 K, J 의원이 ≪병무청 고위간부 K씨 등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검찰은 K씨의 진술내용을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나 김대업씨가 K씨로부터 초기진술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이 의혹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마이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왔다.

사람을 찾습니다

신장 175cm 기준
(이정연씨 신장 179cm 보다 4cm작음)
골격(뼈)무게 : 23-26kg
장기 무게 : 11-14kg
근육 및 수분 : 14-17kg

지난 5월 26일 사이버 참여연대의 게시판에 ≪내과의사≫라는 이름으로 한 네티즌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린 글 중의 일부이다.

91년 2월 병역면제를 받았던 신체검사 당시의 정연씨의 키보다 4cm가 적지만 뼈, 장기, 근육 등 인체의 기본 구성에 따른 최소 무게로 계산하더라도 몸무게가 48kg 이하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정연씨의 신장 및 체중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체격 구조로서 연구 대상≫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거의 볼 수 없는 체중≫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업씨도 ≪지난 2년6개월간 병무비리를 조사해왔지만 면제된 사람 중 정연씨처럼 상식 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단 1명 뿐이었다≫면서 ≪179㎝의 키에 몸무게 45㎏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의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 병색이 완연했다≫고 말했다.

김대업씨는 또 ≪≪오마이뉴스≫의 보도 직후부터 6~7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측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만나서 못할 얘기는 없지만 밀실이 아니고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회창씨가 TV 토론회 등에서 ≪아들의 병역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두 아들의 병적기록부 원본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민 앞에서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내과의사≫와 김대업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만 27세~29세의 전국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79㎝의 키에 몸무게 45㎏ 이하의 ≪건장한 청년≫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측에는 정식으로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대선후보의 검증차원에서 정연씨의 병적기록부 원본을 펼쳐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번주 중으로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접수시킬 예정이며, 한나라당측에서 이를 수락한다면 6월 중으로 토론 장면을 인터넷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대업씨와 한나라당측 인사 1명이 참석해 정연 · 수연씨의 병적기록부 원본을 펼쳐놓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나라당측과 협의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또 179㎝의 키에 몸무게 45㎏ 이하의 ≪건장한 청년≫이 접수되면 확인절차를 거친 뒤 ≪특별사례≫를 할 예정이다. 공개모집은 6월30일까지 한달간이며, 접수는 ohmynews@ohmynews.com으로 하면 된다.

김병기 기자
2002/05/28 오마이뉴스

≪미군기지 반대≫ 10만명 외면말라

미군기지 반대 10만명 서명용지 제출 경찰에 가로막혀

10만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서명한 미군기지 반대 서명용지의 경기도의회 제출이 무산되었다.

28일 오전 11시,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와 우리땅 되찾기 경기도 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준기, 이하 운동본부)≫는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운동본부 대표단들이 10만 2천여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도청 정문을 통제한 채 이를 막아 나섰다.

경찰이 서명용지 제출을 가로막자 운동본부 회원들이 정문을 붙들고 흔드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김준기 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은 ≪경기도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기지의 87%나 자리잡고 있지만 미군은 한푼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만일 경기도에서 그 토지를 개발하고 사용했다면 취득세, 토지세, 종합토지세 등 세수입이 얼마겠느냐. 그 세수입으로 실업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청에서 미군기지 문제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방기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 회원들이 계속해서 항의하자, 도청측에서는 문을 여전히 통제한 채 직원이 나와 정문 창살 사이로 서명용지를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동본부측은 ≪도민들이 서명해 준 귀중한 서명용지를 어떻게 개구멍으로 접수하겠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측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진행해 온 ≪주한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와 우리 땅 되찾기≫ 경기도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한달만에 10만명의 서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고, ≪이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던 매향리 사격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이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의 기만적 행태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심판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6월까지 30만명, 9월까지 50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12월까지 모두 100만명을 목표로 미군기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2002/05/28 오마이뉴스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씨 연행

합법화를 주장하며 활동에 들어간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씨가 28일 낮 3시경, 충청북도 소재 서원대학교 부근에서 연행되었다.

한총련 홈페이지(hcy.jinbo.net) 속보란과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따르면, 27일 서원대학교에서 학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28일 3시경 샛길을 통해 서원대학교를 벗어나자마자 경찰이 달려들었고, 이어 검은색 카렌스 차량에서 내린 경찰을 포함한 10여명이 김형주씨를 연행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영장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어, 불법연행 시비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무렵부터 임시체계를 가져갔던 10기 한총련은, 올해 4월 13일 대의원대회 자리에서 김형주씨와 김재연(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씨의 경선을 통해 김형주씨가 한총련 의장에 선출되고 공식 출범을 하였으며,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는 ≪한국대학생 5월 축전≫ 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과 관련한 판례나 검찰측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고, 올해 연행된 한총련 학생들의 경우, 2001년 까지의 활동에 대한 혐의점을 토대로 영장이 발부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김형주씨의 이번 연행은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토대로 ≪긴급체포≫ 였다는 해명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기 한총련과 관련해서 김형주씨와 대변인 윤경회(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씨에게는 지난 4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검찰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었고, 이어 5월 2일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10기 한총련 의장인 김형주씨의 연행을 시작으로, 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법적 공방과 대의원들에 대한 연행이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28일 오후 5시에 서울경찰청 앞 항의집회를 비롯, 각 지역별로 항의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영하 기자
2002/05/28 오마이뉴스

후보들 TV 토론회 잇따라 거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도입되었던 후보자 TV토론회가 각 후보자들의 정략적 이용에 따라 제구실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동안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토론을 펼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나 기존정당에 비해 자금이나 인지도면에서 열세를 면하기 어려운 군소정당의 경우 TV토론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등 선거문화를 바꾸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평을 들어온 TV토론회가 후보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즉, TV토론회 결과에 따라 후보자들간의 지지율에 변동이 생기는 등 영향이 생기자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토론회를 거부하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YMCA 10만인 유권자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검증 만민공동회》를 김민석, 이명박, 이문옥 등 세 명의 서울시장 후보간 3자 토론으로 진행하고, 이를 SBS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김민석 후보측의 거부로 TV방영이 무산되었다.

김민석 후보측은 《애초 SBS 방영계획은 없었고, 공중파가 낄 경우 그 기준은 달라야 한다》며 《SBS에 방영될 경우, 2자토론은 가능하나, 이문옥 후보를 포함한 3자토론은 안된다》고 서울 YMCA에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문옥 민주노동당 후보 선대본은 이에 대해 《권력형 부패로 지탄받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선거부정 전력이 있는 이명박 후보와 자질비교엔 자신 있지만, 이문옥 후보와 함께 하기가 두려웠던 것인가?》라며 《23일 MBC 100분토론의 5자 토론에 참석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 후보가 이문옥 후보가 낀 토론회의 TV방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도 경기TV의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후보측은 28일 오전에 경기방송측에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TV의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김준기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본은 논평을 내고, 《지난번에 있었던 KBS와 SBS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손학규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라며 《지금 시대에 그 어떤 후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하게 검증받을 기회를 회피하는 후보가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손학규 후보의 TV토론회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민중연대는 28일 오후 2시 손학규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열었다. 경기민중연대는 이날 항의집회에서 《손학규 후보는 지금이라도 초청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정책과 정견, 도덕성 등을 검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후보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최근호씨는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들이 시대의 변화흐름에 맞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보장될 때 정치불신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손 후보측이 왜 토론회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민중연대는 이날 손학규 후보측 당직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손 후보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기민중연대는 손 후보측이 TV토론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힐 때까지 매일 항의집회를 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여론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2002/05/28 오마이뉴스

《김민석후보 당선되지 못해, 사퇴하고 나를 지지해야》

민주노동당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의 실험대에 섰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 부산시장, 울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를 대거 내놓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첫 도입되는 1인 2표 정당명부제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의 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옥 후보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서울시민이 김민석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김 후보가 사퇴해 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으로 자숙하지 않고 선거에 나온 것은 서울시민을 얕보는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이 후보는 《아직 인지도가 낮아 지지도가 적게 나오고 있지만 나의 최종 목표는 당선이다》며 《민주노총 조합원, 공무원조직 등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의외로 상당한 득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3대 핵심 공약으로 ▲공무원노조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 운동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버스 시영화 등 대중교통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장이 되면 《독점적인 시청기자실과 출입기자단을 폐지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동정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일방적인 시정홍보지에 시민이 감시자로 참여하는 시민기자제도를 시정에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는 《한총련의 합법화에 찬성하며, 조선일보 절독운동 등 안티조선운동에도 대찬성이다》며 기존 정당 후보와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이준희 김재중 기자
2002/05/28 디지털말

서울시장후보검증 만민공동회 개최

유권자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서울시장후보를 초청하여 검증과 평가를 하는 만민공동회가 개최된다. Ytimes와 크레지오닷컴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이 행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위원회는 29일 시민평가단 100명 등 유권자 회원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후보 검증, 평가를 위한 유권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 이상을 얻고 있는 김민석, 이명박, 이문옥 후보 세 명이다.

만민공동회는 후보검증매뉴얼에 따라 △공약의 현실성과 적절성 △유권자의제 수용 여부 △개인의 도덕성 △자질과 리더십 △선거운동 등을 가지고 패널토의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내용은 미리 후보들에게서 받은 서면답변서에 기초하지만, 유권자위가 별도로 준비한 X-File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민평가단은 패널토의를 지켜보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거트만(Guttman)식 등위척도(rating scale)에 따라 점감식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만민공동회가 일반 후보초청토론회와 다른 점은 평가결과를 10만유권자들에게 공표하여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이번 패널토의는 경우에 따라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권자위는 만민공동회가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평가결과를 채택하고, △당선 가능성 거론 여부 △전체 혹은 분야별 점수 공개 여부 △서열 공개 여부 △지지 후보 표명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 공표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창간을 준비 중인 인터넷신문 Ytimes는 크레지오닷컴(crezio.com)과 함께 이번 만민공동회를 인터넷 생중계한다.

김종남 기자
2002/05/28 오마이뉴스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논설(편집국 보도 9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이후 급진전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 변혁적 역할을 제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민주통일사상으로 교양하고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며 변혁적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기본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세련되게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제 영역에서 주미철연대, 국보철연대, 민중연대, 시민연대, 통일연대 등 다양한 공투체들이 결성되어 있으며 장차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간고하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조직사상운동, 실천투쟁을 거쳐 다달은 오늘의 민족민주전선운동은 그러나 민족해방,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전진하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을 강화발전하기 위한 예비는 바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란 공산당이나 부르조아정당과는 달리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혁신정당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 당의 성격은 그 이념과 사회계급적 기초에 의하여 규정된다.

합법적 진보정당은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 반대로 부르조아이념이 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애국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역시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변혁운동의 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계급정당이나 반대로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며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계급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나 부르조아민주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이 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투쟁방도는 대중투쟁이나 선거투쟁의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투쟁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세계변혁운동사와 특히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변혁세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한 자주정권수립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선거공간과 의회연단을 활용하여 대중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대중의식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비합법 전위조직이나 반합법적 대중조직, 통일전선조직과는 달리 합법적 수단과 공간을 통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의식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의식화의 위력한 수단인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교육기관을 일상적인 정당활동, 선전활동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정당은 자신의 강령과 정책을 국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자제, 총선, 대선 등의 선거에 결합하거나 의회연단을 통하여 광범히 선전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당원을 대중조직이나 통일전선체에 파견하거나 대중조직의 핵심들을 인입함으로써 자신의 대중지반을 강화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을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에 결집시킨다.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사업을 최고수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정당형태의 조직으로서 국제통일전선운동의 경험으로 보아도, 한국의 60년대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건설하는데서 주동이 되었던 혁신정당의 경험으로 보아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진보적 이념과 광범한 대중지반에 기반하여 기본대중운동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운동단체도 결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당들과의 제휴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조직력과 선전수단을 발동하고 선거공간 및 의회연단을 통하여 한국의 민족민주단체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원호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투쟁의 원칙을 실천으로 구현하며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의 높이에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건설은 제기될 수 있는 좌우편향을 경계하면서 원칙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자주민주통일을 그 지도이념과 강령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이념을 사회주의나 시민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기반하지 못한 그릇된 견해로서 각각 기성이론을 우리 사회에 기계적으로 대입시킨 교조주의적 좌편향과 변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량주의적 우편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변혁을 목표로 건설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은 응당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바탕하고 지난 수십성상의 간고한 변혁실천을 통하여 확증되고 내외에 공인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좌표, 자주민주통일을 그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층을 그 사회계급적 지반으로 삼아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소수정예분자들의 비합법적 전위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진보정당을 영도계급이라고 하여 노동자계급만의 계급정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편협한 좌경적 견해이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부정하며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으로 건설하는 것도 변혁적 원칙에서 일탈한 우경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한국변혁운동의 성격과 그 역량편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의 기본동력만이 아니라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세력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그 기반 위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나 각계각층의 대중조직, 다양한 명칭의 전선조직은 조직형태와 포괄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긴밀히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이며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는 특성상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연계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변혁운동은 대중조직, 전선조직만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견해와 반대로 진보정당의 의의를 절대화하며 대중조직, 전선조직의 의의를 폄하하는 편향들은 다같이 극복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그 어떤 시련과 탄압에도 끄덕하지 않으며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이라는 대중적 지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한편 그 실천적 성과를 조직하는 방향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실천투쟁의 열풍 속에서 그 성과를 조직하며 건설되는 진보정당만이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며 전투적인 정치부대로서 장성발전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대중투쟁에만 몰두하며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선거 및 의회 투쟁만을 정당건설의 동력으로 삼는 견해 역시 편향이 아닐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공동의 좌표를 지향하는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은 응당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에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거하여 건설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시기의 ≪국민승리 21≫을 모체로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비록 원내진입은 좌절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령에 내포하는 일정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전의 혁신정당들과 확연히 다른 진보정당이다.

50년대 진보당은 비록 200만표라는 상당한 득표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조봉암이라는 개인적 명망에 의거하였기에 이승만역적의 ≪간첩≫조작극에 무력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60년 4.19봉기 이후 건설되었던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40개단체를 모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역시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박정희파쇼도당의 탄압에 와해되었다.

8-90년대 한겨레당이나 민중당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며 선전하였으나 여러 한계를 노정하며 총선 후 해체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기본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대선, 총선 이후에도 갈수록 확대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성공가능성도 없으면서 ≪선거변혁≫의 환상만 심어주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는 민족민주세력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켜주었으며 점차 민주노동당을 기본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노선이

대세를 이루게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와 혁신적 입장은 그간 진보정당건설에 소극적이었던 전국연합과 한총련 등의 민족민주세력으로 하여금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장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좌경적 부분을 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취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강령에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비과학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좌경적인 목표로서 민주노동당이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는데서나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획득하는데서나 최대의 장애로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광범한 중간세력을 모두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기존의 부르조아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조직망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군중과 중간층을 폭넓게 인입하는 한편 부문조직망 체계를 완성할 때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연합이 지역간연합체의 한계를 조만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반해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잠재력을 확인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중간층을 묶어세우는데서 우월하다는 점, 통일전선운동을 당차원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해서 향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며 주체세력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할 때,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지반축성은 질적으로 비약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원칙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미자주를 주선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 맞게 신축성 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할 때 민주노동당은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민주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광범한 시민운동세력을 정치적으로 포괄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열풍속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만이 응당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은 명백하다.

민주노동당이 당면한 내년의 양대선거를 발판으로 차후 총선에서 의회에 진입하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는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고르게 승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민주노동당이기에 당선이 가능한 전략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전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제 민족민주세력의 합류가 실현된다면 민족민주대오의 정치세력화에 전환적 국면이 마련될 것이며 향후 선거국면과 정치정세는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더욱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전환적 계기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격동적인 정세발전의 요구, 절박한 전선운동의 요구를 당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틀어쥐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애국적이며 통일전선적인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될 때,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승리를 향한 비약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9월 9일

광 고

PDF 자료집

진보정당

노작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진보정당사
4.19시기까지의 진보적 합법정당운동(한국전위조직운동사) / 사회대중당(정치사전에서 발췌) / 진보정당 약사(민노당 홈페이지 발췌) / 통일전선론(통혁당-발췌)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한국청년전위의 임무 /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 한총련 운동가들을 위한 진보정당 건설관련 1문1답 / 유시민의 100분토론

주요논문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한백연) / 운동진영 일각에서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정진) /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실천(차민철)

민주노동당의 강령
창당선언문 / 강령 / 민주노동당 당헌

민주노동당 주요활동
413총선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진로 / 남북정당사회단체 민족연석회의 개최 주장 / 매향리폭격장폐쇄, SOFA전면개정촉구 민주노동당 투쟁선포식 개최 / 민주노동당 민생살리기 10만km 대장정에 나서며 / 정부는 방북단 구속방침을 철회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민생 2대 법안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1년

민주노동당의 재창당
민족민주세력 총단결로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정성희) /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 / 민족민주운동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한총련
진보정당운동을 위한 한총련정치위원회 구성하자!(민노당 학생당원의 제안) / 민주노동당 참여와 한총련의 진로(민노당 학생당원의 제안)